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 “아직 안심할때 아냐 선제적인 대응 필요”

## 文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위험성 높은 시설부터 전수조사  
‘마스크 5부제’ 불가피한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접어든 데 대해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을 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코로나 19) 집단 감염의 위험성은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과 종교행사 등 다중·다수의 밀집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험성이 높은 시설부터 전수조사를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달 28일 916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이달 8일 248명으로 줄어드는 점을 언급하며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게 정부의 방역 대책이 효과적인 점을 입증하는 증거로 꼽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적으로는 여러 나라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늘

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추세를 계속 이어가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코로나 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대구·경북 등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데 대해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된다는 것은 보다 큰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므로 우리는 아직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며 국민께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감염병 대응 방침과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라줄 것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따라 마스크 공급량이 부족해지자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 데 대해 “감염병의 빠른 확산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어 “아직 공급량이 부족한 데다 방역 현장과 의료진, 취약계층, 대구·경북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해 가면서 5부제를 운영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넓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달라. 정부는 마스크 공급량을 신속히 늘려 5부제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박근혜 지우기’ 친박계 인사 대거 물갈이

## 미래통합당 공천 가속도

친박계 인사 연이어 공천 탈락  
“계파색 없이 공정성 기준 적용”

미래통합당이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박근혜 그림자’를 지우는 모습이 다. 친박계(친박근혜계) 출신 인사들이 연이어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9일 통합당에 따르면 컷오프된 통합당 의원은 18명이다. 이들을 계파별로 분류할 때 친박계가 7명이다.

국회 부의장인 이주영 의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박대훈·김석기·김한표·민경욱·백승주 의원이 컷오프된 인사다, 이 가운데 윤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친박계 인사로 분류되는 정갑윤·원유철·유기준·김정훈 의원 등은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다만, 비박계(비박근혜계)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컷오프되거나 불출마 선언했다.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 학살’로 인식될 경우 당내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통합당 전신)은 이른바 ‘진박(진실한 친박계) 감별사’가 등장해 논란이 됐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진이계



미래통합당이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친박근혜계) 인사를 배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계파 갈등을 고려해 비박계(비박근혜계) 인사도 컷오프하는 모습이다. 사진 왼쪽부터 컷오프 대상에 오른 김재원, 강석호, 김석기, 백승주, 박대훈, 정태욱 의원. /연합뉴스

(친이명박계) 공천 학살로 당내 갈등이 절정에 달한 적도 있다.

통합당은 두 사례를 고려해 공천 과정에 계파 갈등 요소는 배제하는 모양새다. 비박계인 강석호·김재경·홍일표 의원도 컷오프 대상에 올랐다. 비박계 좌장 격인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유승민·김성태·김세연·김영우·여상규·이진복·김도읍 의원 등은 불출마 선언하며 21대 총선에 나서지 않는다.

동시에 김형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언한 ‘현역 의원 1/3 물갈이’도 달성했다. 통합당이 8일까지 공정한 결과에 따르면 소속 의원 118명 가운데 27명이 불출마 선언하고, 18명은 컷오프됐다.

이와 관련해 김형오 위원장은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불출마 선언’을 요청했다. 공천 면접 과정에서도

불출마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이 4일 ‘옥중 서신’을 통해 야권 통합에 대해 강조한 것과 별개로 공천 심사도 이어갔다.

통합당의 이같은 행보는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통합당은 박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끼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이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끼칠 경우 또 다른 계파 갈등이 이어지거나, 총선에 부정적인 여론까지 생길 우려 때문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6일 대구·경북 지역 공천 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진박이다 아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았다. 계파색이나 어떤 정파의 입장에 입각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의 확고한 공정성과 기준으로 했다”고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최영훈 기자

## 교육부, 34개 일반고 ‘인공지능 기초 원리교육’ 대상 선정

4년간 2억 5000만원 지원

내년에 전체 교과 수업의 15% 내외를 인공지능 관련 과목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생긴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본격 시작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도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 운영고’ 34교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별 선정 학교는 동양고·서라벌고·오산고·대릉고·환일고(서울), 동아고·삼정고(부산), 화원고·대건고(대구), 인천연송고·인천청라고(인천), 서강고(광주), 대전고·대전여고(대전), 울산경의고(울산), 김포제일고·매탄고·

송내고·세교고·일산대진고(경기), 치악고(강원), 주성고(충북), 논산대건고·천안오성고·천안월봉고(충남), 무안고·문태고·순천매산고(전남), 안동고·안동중앙고·포항제철고(경북), 마산구암고·마산삼진고(경남), 제주중앙여고(제주) 등이다.

이들 학교는 일반고에서 소인수 선택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희망하는 인근 학교 학생에게도 이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역할을 맡는다.

올해는 학교당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2021년~2023년까지는 매년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2023년까지 전체 교과 수업의 15% 내외를 프로그래밍,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가칭), 인공지능 수학(가칭) 등의 과목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또 공동 교육과정으로 연간 4단위(1개 과목을 1년 동안 주당 2시간 운영하는 분량) 이상 과목을 개설해 인근 학교 학생들도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올해는 준비기간으로 선정 학교는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위한 환경 구축에 나선다. 교사 대상으로 방학 중 심화 연수를 하고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과정도 제공한다.

/한용수 기자 hys@

## 이화여대 ‘윤세영 저널리즘 스쿨’ 출범

저널리즘 수준 높이기 위한 연구활동 수강료 없이 입학생 2년간 무료 교육

이화여자대학교는 서암윤세영 재단과 한국 저널리즘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저널리즘 교육의 새로운 산실이 될 ‘윤세영 저널리즘 스쿨(이하 YJS)’을 3월 11일 공식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YJS는 이화여대와 SBS문화재단이 2014년부터 공동운영한 ‘프런티어저널리즘스쿨(FJS)’을 확대 개편한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는 이화여대 정책과 학대학원에 신설된 저널리즘교육원(원장 이재경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이 운영한다.

서암 윤세영 재단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이화여대와 2020년부터

10년간 해마다 5억 원씩, 모두 50억 원을 이화여대에 기부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화여대는 YJS 학생이 교육에 전념하도록 대학원 별관 건물을 향후 10년 간 고정 교육공간으로 제공한다.

대학원 별관은 1936년에 건축된 3층 건물로 YJS를 위한 강의실, 연구실과 행정실, 그룹 스터디 공간이 마련됐다.

서암 윤세영 재단의 지원으로 YJS는 기자 및 시사교양 PD 지망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널리즘 윤리 및 실무 교육 외에 한국 저널리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 활동을 벌인다. 입학생은 수강료를 내지 않고 2년간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용수 기자

## 저소득층 고교생 대상 장학생 30명 선발

###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유학장학금·카운슬링 등 지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고교생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장학금(드림장학금)’ 신규 장학생을 총 30명 규모로 선발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4월 7일까지며,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성적이 우수한(내신 3등급 또는 성취도 A 이상) 고교 2,3학년 학생 중 해외대학 유학 희망자다.

신청자 중 유학준비생(국내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고교 재학 중 유학 준비를 위해 매월 50~70만원의 학업장려비

와 유학 카운슬링을 지원받는다. 이후 해외 대학에 합격하면 별도 심의해 유학생(해외장학생)으로 전환, 연간 최대 6만 달러의 학비와 체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2년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2020년 현재 세계 8개국 65명의 장학생이 지원받고 있다.

올해 신규 장학생은 고2,3학년을 각각 절반 비율로 선발하되, 특성화고 학생을 최대 5명 포함할 계획이다. 17개 시도교육청 추천을 받은 학생은 서류 심사시 가점이 부여된다. 교육청 추천을 받지 않아도 학생이 직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 안성포 전남대 교수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취임

전남대학교는 안성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지난 1일 한국기업법학회 제15대 회장에 취임했다고 9일 밝혔다.



1989년 출범한 한국기업법학회는 전국 법학교수와 법조인·기업실무가 등 전문가 55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매년 4차례의 정기학술대회를 갖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기업법연구」를 연 4회 발행하는 등 국내·외 기업법제에 관한 조사와 학술 연구를 해오고 있다.

/이현진 기자 ihj@